

평화의 상징이 천덕꾸러기로



평화의 상징인 도심 속 비둘기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비둘기가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대상 조류에 포함되면서 도심 속 '비둘기 모이 주기'를 놓고 시민들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둘기 모이주기를 금지해달라'는 민원까지 구청에 제기되는 등 비둘기가 즐지에 주민간의 갈등 대상으로 떠올랐다.

14일 광주시 남구청에 따르면 최근 주민 K(69)씨가 비둘기 모이를 주는 행위를 막아달라는 민원을 구청에 제기했다. K씨는 약 1년 전부터 광주시 남구 양림동 양림교 아래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주민 때문에 산책이나 운동 등을 하는 시민들이 불편감을 느끼며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모이로 인해 인근 광주공원이나 사직공원의 비둘기 수 백여 마리가 날아와 배설물이나 털이 날리는 것은 물론 AI 감염도 우려된다며 이를 하루빨리 막아줄 것을 구청에 건의했다.

K씨는 "노인에게 모이를 주지

"털·배설물 날려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우려"

비둘기 모이주기 금지 민원... 주민들 갈등도

말라고 수차례 말했으나 듣지 않자 광주시는 물론, 남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며 "특히 수억원의 돈을 들여 최근 경관을 개선한 양림교가 비둘기의 배설물 등으로 더럽혀지는 것은 물론, AI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심도 크기 때문에 구청이 나서서 이 같은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비둘기 민원 때문에 남구청도 골머리를 앓고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개인이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를 법률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다"며 "노인이 다리를 손상시키거나 직접 더럽혀지 않는 이상 제재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 AI 대책을 발표하면서 비둘기 모이를 주지 말 것을 대책중 하나로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 도심에만 100만 마리가 넘는 비둘기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강필상기자 kps@



시각염 우려와 배설물 등으로 인해 비둘기가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광주공원 광장에서 한 시민이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희망나눔 콘서트 광주시가 주관한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나눔콘서트가 14일 오후 광주시청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강원래씨가 이끄는 '꿈따리 유랑단'의 뮤지컬 연극 '꿈앞에 당당 하라'와 광주애육원팀 '꿈을 품은 메이리 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안전 체험관 건립·로봇센터 구축

광주시 중장기 발전 6개 분과 정책과제 제시

크고 작은 안전 사고에 대비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이 광주시의 중장기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안전체험관'은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교과 과정은 물론 각종 방재관련 교육시설에서 채택하고 있는 체계적인 안전교육 시스템을 모델로한 종합 안전교육기관이다.

광주발전전략연구단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생산, 문화, 생태, 선진복지, 도시기반, 시민안전 분과 등 6개 분야에서 6개 중장기 정책과

제 발굴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민안전 분과는 연구 결과를 통해 생활, 산업, 화재, 가스, 전기, 자연재해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체험관' 건립을 제안했다. 또 설립 예정지로 내년 이전 예정인 광주시 북구 전 남도육청 청사, 광산구 어등산 테마파크 조성부지, 남구 신태안 등을 제시했다.

생산도시 분과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광주 로봇센터 구축방안', 문화도시 분과는 '문화콘텐츠 국제유동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생태도시 분과는

'환경기초 시설 주변 생태숲 조성방안', 선진복지 분과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방안' 등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도시 기반 분과는 동광주 IC인근 광주 교도소 주변의 개발계획, 2차 순환도로 완성에 대비한 동광주 IC 주변 교통체계 개선 방안과 도시 계획 시설 계획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 발전전략연구단은 지난 2005년 조직된 광주시의 싱크탱크로 대학, 산업체, 연구기관 종사자 등 모두 60명이 참여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5·18 행불자 유가족 유전자 검사

이달말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는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행방불명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이달말까지 제4차 유전자 검사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제6차 5·18민중항쟁 보상 신청자 36명 가운데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은 9가족 27명으로 피해자의 직계 모계순으로 유족당 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지난 2001년 옛 5·18묘역에

서 발굴돼 연구자가 없어 국립 5·18 민주묘지 무명열사 묘역에 안장된 5기와 암매장 제보지로 신고돼 2002년 광산구 소촌동에서 발굴된 10기 등 15기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발굴 예정지인 북구 효령동 20여기에서 유골이 발굴될 경우, 지난 3차까지 채혈을 마친 122가족 282명과 이번 채혈 대상자 9가족 27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도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윤영기기자 penfoot@

남구, 연말연시 이웃돕기 온정 줄이어

연말연시를 맞아 광주시 남구에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광주서비스센터는 지난 9일 소년소녀가장 등 70세대의 불우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쌀 20kg 70가마니를 구에 기탁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광주 수피

여고 3학년 학생들은 연탄 4천 200백 장을 구입, 저소득층 14세대대에 직접 전달했다. 또 (재)방촌 장학재단은 지난달 21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30명을 선발, 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특히 SK텔레콤 서부지역본부는 지난달 5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사랑의 연탄 2만4천 장을 기탁했다. /강필상기자 kps@

북구 '으뜸 화장실 공모' 5곳 선정

광주시 북구 용봉동 그림비아또 비엔날레 화장실이 북구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로 뽑혔다.

14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구는

'으뜸 화장실 공모전'에서 용봉동의 '그림비아또 비엔날레점'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화장실 5곳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일곡동의 서태후 별관과 용봉동의 수궁 사브사브가 ▲장려상에는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와 충효동의 호수생태공원이 각각 뽑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역 음식점과 주유소, 학교 등 24곳이 참가했다. /이종형 기자 goloe@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조아 여행사
234-3222

인본유치원

429,000
529,000
589,000
429,000

12월 여행 상품

북경 문화여행 399,000 ~
북경 문화여행 499,000 ~
상해 / 광주 / 소주 299,000 ~

대한 화원 이후 (본선비A) 799,000
대한 화원 이후 (101일승무원) 899,000

제주 2박3일 패키지 99,000

제주 해돋이 투어 3박 패키지

270,000
255,000
160,000
150,000